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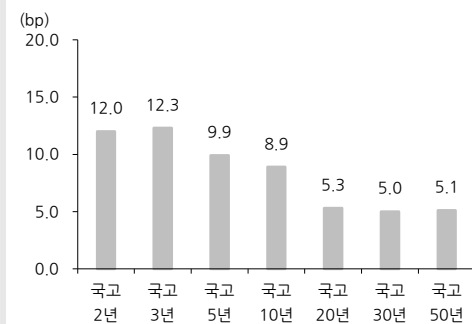
# 한화 FI Weekly

맛있는 재료들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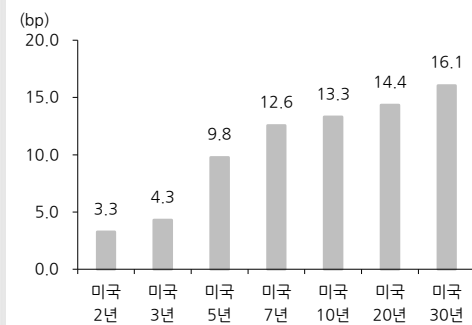
## [주요 데이터 및 차트]

###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몰라서 내린, '시험성' 기준금리 인하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금융안정과 경기를 통해 전망 가능. 금융안정은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하를 지지. 총재와 금통위원 전원 9월 한달은 부동산이나 대출 흐름을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음을 인정. 다만, 인하를 한 뒤의 영향이나 효과를 알 수 없고, 경기나 물가가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험성' 인하로 귀결

금번 금통위에서 소비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은 '성장 전망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내수는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뿐더러 당장 경제는 인하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한국은행도 동의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 그 이상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님. 따라서, 기준금리의 연내 동결은 물론 2025년에도 신중한 인하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 2025년 말 기준금리는 1, 3분기 각 한 차례씩 인하, 2.75%를 전망

## WGBI는 스팀팩이 아니다

정부 예상대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67~71조원이나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 WGBI는 2022년 말 ~ 2023년 초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이슈. 이 때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장기 국채 잔고(7년 이상 국채 비중: 31.0% → 38.5%)도, 국내채권 듀레이션(4.3년 → 6.4년)도 크게 증가하고 확대되었음

지수 내 국고채 예상 비중(2.25%)과 함께 계산해보면 550억달러가 유입 가능한 금액. 원화(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로 환산하면 74.2조원. 2023년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잔고 순증분(41.5조원)을 빼면 앞으로 들어올 자금은 대략 32.7조원. 조금 긍정적으로, 2024년 이후 잔고 순증분(16.7조원)으로 계산해도 57.5조원. 70~80조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 전망은 타당. 그러나 이 부분도 어느덧 6년을 넘어서 외국인과 WGBI(7.1년) 듀레이션 격차가 크게 축소된 부분도 고려할 필요. 자금도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장기 구간의 수혜도 기대했던 것 보다 작을 가능성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간 채권시장 전망

### 1-1. 모르니까 내려본 것

#### ‘시험성’ 기준금리 인하

무슨 맛인지는 일단 먹어봐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려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마침 물가도 많이 둔화되었으니 지금 수준의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둘 다 맞는 말이고, 적절한 인하 결정이었다.

#### 1) 금융안정, 인하 영향을 모르니까 내려본 것. 점진적 인하 지지

물가는 당연히 한국은행 정책 결정의 최우선순위 고려사항이지만 지금은 한시름을 놓았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금융안정과 경기를 통해 전망해볼 수 있다. 금융안정은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하를 지지한다. 총재와 금통위원 전원 9월 한달은 부동산이나 대출 흐름을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인하를 한 뒤의 영향이나 효과를 알 수 없고, 경기나 물가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니, ‘시험성’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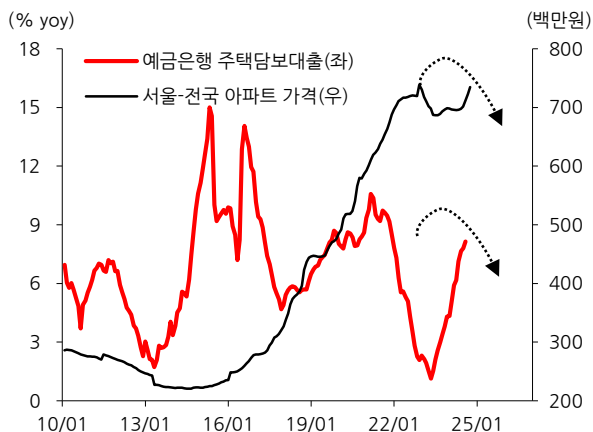
#### 2) 경기, 내수 회복세 판단 유지. 시급한 인하가 필요하지 않음

경기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문은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다. 금번 금통위에서 소비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은 ‘성장 전망경로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내수는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이전 보고서들에서 이야기했듯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뿐더러 당장 경제는 인하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한국은행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 신중한 스탠스 유지될 것 2025년 말 기준금리 2.75%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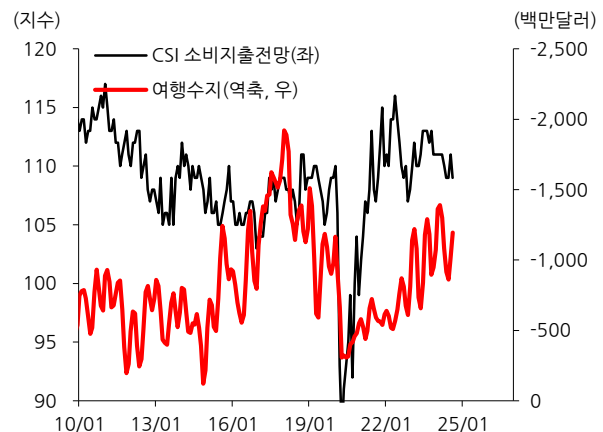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다. 여기까지다. 그 이상,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연내 동결은 물론 2025년에도 신중한 인하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2025년 말 기준금리는 1, 3분기 각 한 차례씩 인하, 2.75%를 전망한다.

[그림4] 부동산, 가계대출은 ‘주춤’이 아닌 꺾여 내려가야 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KB부동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내수는 회복 추세,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 중



주: 여행수지는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1-2. WGBI 는 스팀팩이 아니다

WGBI, 환호할  
정도로 좋은 소식인가

국고채 시장의 WGBI 편입은 명백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2025년에도 꾸준할 자금 유입은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을 덜어줄 테고, 장기적으로도 지수에서 편출되지 않는 한 관련 자금은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과연 WGBI 이슈가 총재처럼 ‘감개무량’할 정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0조원 자금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정부의 추가 67~71조원 자금 유입 예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WGBI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2022년 말 ~ 2023년 초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이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장기 국채 잔고(7년 이상 국채 비중: 31.0% → 38.5%)도, 국내채권 듀레이션(4.3년 → 6.4년)도 크게 증가하고 확대되었다.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자금이 상당량

국채 지수 추종 자금을 대략 2.5조달러로 가정하고 지수 내 국고채 예상 비중(2.25%)과 함께 계산해보면 550억달러가 총 유입 가능한 금액이다. 원화(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로 환산하면 74.2조원이다. 2023년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잔고 순증분(41.5조원)을 빼면 앞으로 들어올 자금은 대략 32.7조원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2024년 이후 잔고 순증분(16.7조원)으로 계산해도 57.5조원이다. 70~80조원과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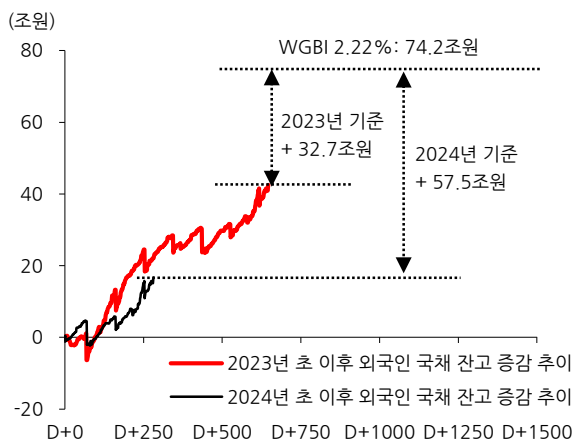
외인 듀레이션도 크게 확대,  
장기 구간 수혜  
크지 않을 가능성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 전망은 맞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느덧 6년을 넘어선 외국인과 WGBI(7.1년) 듀레이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금도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장기 구간의 수혜도 기대했던 것 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국고 3년: 2.90~2.98%  
국고 10년: 3.0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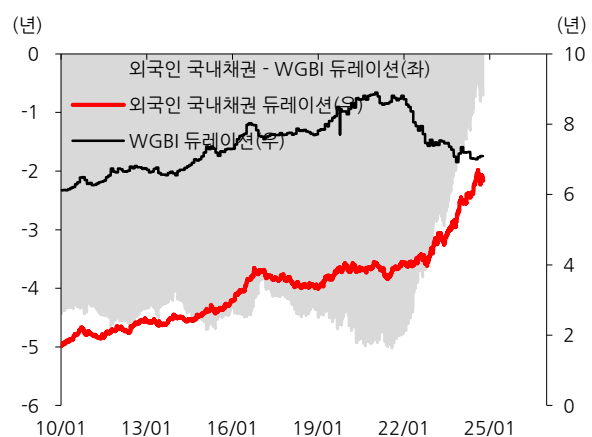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90~2.98%, 3.00~3.10%를 제시한다. 기대했던 두 재료, 기준금리 인하와 WGBI는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었다. 미국도 주가 ‘50bp’ 인하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큰 이슈들이 대부분 밟혔던 만큼 강세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6] 향후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 추정치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외국인 국내채권 및 WGBI 듀레이션 추이



주: 순매도종목 제외

자료: FTSE Russell,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0/8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매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의 중심은 높은 물가에서 높은 실업률로 이동했을 가능성</li> <li>- 그럼에도 미국 경기는 회복력을 보유. 고용시장도 강력함이 유지되고 있음 연준은 이를 이어나가야 함</li> <li>- 본인은 인플레이션 반등 징후가 없다고 판단</li> <li>- 신규 임대 수요 감소는 주거 물가도 둔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음</li> <li>- 연준 대차대조표는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음(a ways to go yet)</li> <li>- 중립금리 관련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 개인적으로는 3% 부근으로 생각</li> </ul>
10/8	Alberto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와 고용 관련 리스크는 균형 상태</li> <li>- 지나치게 빠른 정책 완화가 지나치게 느린 완화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easing policy too early could have higher costs than waiting)</li> <li>- 점진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li> <li>- 몇 개 분기 동안 PCE 물가는 2%에 수렴할 것. 지금도 물가 상방 압력은 존재하나 심각하지는 않음</li> <li>- 9월 점도표를 보고 향후 정책 경로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li> </ul>
10/8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점도표 전망치는 중간값보다 조금 위( slightly above than the median)</li> <li>- 지금도 이 전망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li> </ul>
10/8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 9월 50bp 인하가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님</li> <li>- 정책 관련 선행지표들은 대체로 연준이 가려는 경로에 부합. 연준은 기준금리의 중립수준 복귀가 목표</li> </ul>
10/8	Adriana Kug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가 예상 경로에 부합할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하 지지</li> <li>- 물가 둔화 관련 진전이 부족하다면 정상화의 속도 역시 느려지는 것이 적절. 반면, 고용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경우에는 조금 빠른 속도의 인하가 필요</li> <li>-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내릴 것</li> <li>- 허리케인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li> </ul>
10/9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장은 완화된 것이지 부진이나 약화가 아님(labour market is slowed down, not slow or weak)</li> <li>-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적정 규모를 상회</li> <li>- 경제는 연준이 예상하는 수준에 근접</li> <li>-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2% 훨씬 위에 위치( quite a ways above 2%)</li> <li>- 경제의 강력함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조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li> <li>- 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졌다고 판단, 가격 조정에 신중해졌음</li> <li>- 허리케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li> <li>- 공급망 변화는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연준은 이를 이해해야 함</li> </ul>
10/9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확신(more confident inflation is on durable path of ebbing)</li> <li>- 연준에게는 건전한 고용 시장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li> <li>-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음.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신규 고용자수 증가세는 견조</li> <li>- 데이터들은 경제가 강력하고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중</li> <li>- 경제 관련 낙관적 인식도 확대</li> </ul>
10/9	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장은 원만하지만 유의미하게 완화(modest but noticeable cooling in job market)</li> <li>-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 복귀 중</li> <li>- 물가와 고용 관련 목표는 대체로 균형 상태</li> </ul>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0/10	Lorie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정책에는 미리 정해진 것이 없음.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결정</li> <li>-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normalising policy gradually)는 고용시장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함임</li> <li>- 또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lowering policy rate gradually)는 적절한 정책 수준을 판단하기에 용이</li> <li>-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2% 위에서 고착화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헤드라인은 물론 주거와 근원물가 흐름은 추가적인 둔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li> <li>-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의 존재는 연준이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li> <li>- 고용과 물가 모두 연준의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왔음. 물가 둔화세는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되었고, 고용은 완화되었지만 건전한 수준 유지 중</li> <li>- 지금부터는 고용시장의 완화가 물가 목표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해야 할 때</li> <li>-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강력한 것은 사실. 그러나 전망 경로에는 여러 유의미한 불확실성이 존재. 견조한 소비와 성장세는 예상보다 강하게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li> <li>- 중립금리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경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을 것</li> <li>- 의도치 않은 금융 완화는 총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li> <li>- 기준금리 인하는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a boost to energy sector from rate cuts)</li> </ul>
10/10	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장은 질서있게, 예상 가능한 경로에서 둔화 중</li> <li>- 추세적 물가 흐름은 2%로 복귀 중. 양대 책무가 대체로 균형 잡혀(roughly in balance)있다는 것</li> </ul>
10/10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세계대전 이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대체로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종료</li> <li>-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면 일할 수 있고, 물가는 둔화되었으며 경제는 성장 중</li> <li>-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 아직 승리를 선언할 수는 없음</li> <li>- 2% 부근 물가 상승률, 4.1% 실업률, 2.5~3.0% 경제성장률이 최적 지점.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li> <li>-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이는 절대적(sacrosanct).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논할 때가 아님</li> <li>- 본인은 당초 2%라는 정확한 목표 달성 원칙에 비판적이었음. 그러나 엄격한 준칙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li> <li>- 최근 3개월 추세 물가상승률은 1% 미만이지만 실제로 물가가 1%대에 머무를 가능성은 제한적</li> </ul>
10/10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기준금리 인하 지지</li> </ul>
10/10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은 완전고용 상황(full employment reached). 물가도 2%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li> <li>-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실질금리는 상승.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정책 조정이 적절한 시점</li> <li>- 9월 기준금리 결정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님</li> <li>- 연말까지 1~2차례 추가 인하 예상.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adjust rates as necessary)한 시점</li> </ul>
10/10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추세는 명확히 물가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보여줌.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완화. 정책 환경이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li> <li>- 고용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걱정을 덜 수 있음</li> <li>- 수동적인 정책 운영은 현재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님</li> </ul>
10/11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li> <li>-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주택 수요 자극 가능성</li> </ul>
10/11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장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li> <li>- 연말 실업률은 4.25% 전망. 2025년도 비슷할 것. 올해 물가상승률은 2.25%, 2025년에는 2%에 근접할 것. GDP 성장률은 2.25~2.50% 예상. 그 이후 2년 간 평균은 2.25%</li> <li>- 경제는 견조하고 고용시장도 건전한 상황. 경제활동 수준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균형 잡혀 있음</li> <li>- 언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감소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li> </ul>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0/11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 연말까지 동결하자는 의견에도 전향적인 입장</li> <li>- (CPI 예상치 상회 관련) 거시적 환경의 변동성(choppiness)은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지</li> </ul>
10/1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대출은 이전 2~3개월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후행하는 성격. 현재 거래량은 크게 감소.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의미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li> <li>- 9월 한 달이 금융안정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음</li> <li>- 금융안정을 계속해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금번 인하 결정을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li> <li>- 불필요한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li> <li>- 정책 실행 여부는 내수만 보았을 때 의견. 금융안정과 내수를 함께 고려해서 정책 운영할 것</li> <li>- 8월 금통위 때도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의견 존재</li> <li>-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반등이 큰 걱정거리</li> <li>-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 뒤 그 영향과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li> <li>- 내수 중 소비는 하반기 소폭(상반기 1.4%, 하반기 1.8%), 잠재성장을 수준으로 복귀 중. 회복 추세</li> <li>-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 결과와 미국 경제 연착륙, 중국 경기 부양 효과, IT 사이클 등</li> <li>-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움</li> <li>- 부동산보다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li> <li>- 8월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미국과 국내 통화정책 때문</li> <li>- 이후, 미국은 경기의 강력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미국 금리 기대감도 약화</li> <li>- 다만, 한국은 통화정책 관련 시장과의 인식 차이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음</li> <li>- 현 시점 금리 레벨 관련 한국은행과 시장의 인식 차이는 축소</li> <li>- 내수와 성장 전망치는 현 상황에서 동일</li> <li>-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하게 됨</li> <li>- 물가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li> <li>-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존재. 그러나 금융안정 추이를 살펴 보면서 결정할 것</li> </ul>
10/12	Lorie Logan (달러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물가 지표는 매우 긍정적</li> <li>- 통화정책은 긴축 강도가 조정되어도 계속해서 물가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li> <li>- 미국 경제는 강력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li> </ul>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4	15	16	17	18
<p>미국 휴장(콜럼버스 데이, 채권/외환)</p> <p>일본 휴장(스프링의 날)</p> <p>Orr RBNZ 총재 연설</p> <p>(한국)</p> <p>국고 3년 입찰(1 조 6,000억원)</p> <p>(중국)</p> <p>9월 CPI(10/13)</p> <p>(전월비: 0.4%, 전년비: 0.6%)</p> <p>9월 PPI(10/13)</p> <p>(전월비: -0.7%, 전년비: -1.8%)</p> <p>9월 수출입(위안화)</p> <p>(수출 전월비: 2.9%, 전년비: 8.4%)</p> <p>(수입 전월비: 1.0%, 전년비: 0.0%)</p>	<p>Walker 연준 이사(매파, O) 연설</p> <p>(한국)</p> <p>국고 2년 입찰(7,000억원)</p> <p>9월 수출입물가</p> <p>(수출 전월비: -2.6%, 전년비: 5.7%)</p> <p>(수입 전월비: -3.5%, 전년비: 1.8%)</p> <p>(미국)</p> <p>9월 뉴욕 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p> <p>(전월: 3.0%, 전년: 3.67%)</p> <p>10월 뉴욕 연은 엘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p> <p>(예상: 0.0, 전월: 11.5, 전년: -4.6)</p> <p>(유로존)</p> <p>10월 ZEW 경기전망지수</p> <p>(전월: 9.3, 전년: 2.3)</p> <p>8월 산업생산</p> <p>(전월비: -0.3%, 전년비: -2.2%)</p>	<p>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p> <p>9월 실업률</p> <p>(전월: 2.4%, 전년: 2.6%)</p> <p>8월 M2 통화공급</p> <p>(전월비: 0.4%, 전년비: 6.2%)</p> <p>(미국)</p> <p>9월 수출입물가</p> <p>(예상(m): 수출: -0.3%, 수입: -0.3%)</p> <p>(수출 전월비: -0.7%, 전년비: -0.7%)</p> <p>(수입 전월비: -0.3%, 전년비: 0.8%)</p>	<p>유로존 ECB Governing Council Meeting</p> <p>(미국)</p> <p>9월 소매판매</p> <p>(예상(m): 0.2%, 전월비: 0.1%, 전년비: 2.1%)</p> <p>10월 필리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p> <p>(예상: 2.9, 전월: 1.7, 전년: -12.1)</p> <p>10월 산업생산</p> <p>(예상(m): -0.1%, 전월비: 0.8%, 전년비: 0.0%)</p> <p>10월 NAHB 주택시장지수</p> <p>(전월: 41.0, 전년: 40.0)</p> <p>(유로존)</p> <p>9월 CPI Core CPI</p> <p>(CPI 전월비: -0.1%, 전년비: 2.2%)</p> <p>(Core 전월비: 0.1%, 전년비: 2.7%)</p>	<p>Kash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매파, X) 연설</p> <p>(한국)</p> <p>국고 50년 입찰(5,000억원)</p> <p>(미국)</p> <p>9월 주택착공</p> <p>(예상(m): -0.5%, 전월비: 9.6%, 전년비: 3.9%)</p> <p>9월 건축허가</p> <p>(예상(m): -1.4%, 전월비: 4.6%, 전년비: -6.8%)</p> <p>(유로존)</p> <p>8월 경상수지</p> <p>(전월: +42.7억\$, 전년: +21.5억\$)</p> <p>(일본)</p> <p>일본은행 국제매입</p> <p>(중국)</p> <p>3분기 GDP</p> <p>(예상 전분기비: 0.9%, 전년비: 4.6%)</p> <p>(전분기비: 0.7%, 전년비: 4.7%)</p> <p>9월 산업생산</p> <p>(전월비: 0.3%, 전년비: 4.5%)</p> <p>9월 소매판매</p> <p>(예상(y): 2.6%, 전월비: 0.0%, 전년비: 2.1%)</p>
21	22	23	24	25
<p>(한국)</p> <p>국고 10년 입찰(1 조 5,000억원)</p> <p>(미국)</p> <p>9월 선행지수</p> <p>(전월비: -0.2%, 전년비: -5.0%)</p>	<p>(한국)</p> <p>9월 PPI</p> <p>(전월비: -0.1%, 전년비: 1.6%)</p> <p>(미국)</p> <p>10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p> <p>(전월: -21.0, 전년: 4.0)</p>	<p>(한국)</p> <p>10월 CSI</p> <p>(전월: 100.0, 전년: 98.2)</p> <p>(미국)</p> <p>9월 기준주택 판매</p> <p>(예상(m): -1.6%, 전월비: -2.5%, 전년비: -4.2%)</p>	<p>미국 연준 Beige Book</p> <p>Hamack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p> <p>11월 BSI 제조업 전망</p> <p>(전월: 73.0, 전년: 69.0)</p> <p>3분기 GDP(속보)</p> <p>(전분기비: -0.2%, 전년비: 2.3%)</p> <p>(미국)</p> <p>20년 국채 입찰(Reopening)</p> <p>(4.04%, 간접: 65.1%, 응찰률: 2.51배)</p> <p>9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p> <p>(전월: 0.12, 전년: -0.01)</p> <p>9월 신규주택 판매</p> <p>(전월비: -4.7%, 전년비: 9.8%)</p>	<p>(미국)</p> <p>10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p> <p>(전월: -8.0, 전년: -6.0)</p> <p>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확정)</p> <p>(전월: 70.1, 전년: 63.8)</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